

이케다 데루마사는 1584년부터 1591년까지 기후성의 성주였다. 데루마사는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으로 노부나가의 여러 주요 전투에 참가했으며, 노부나가가 사망한 후 이케다 데루마사의 일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를 섬겼다. 1584년 고마키 나가쿠네(아이치현) 전투에서 아버지 쓰네오키(1536~1584)와 형 모토스케(1559~1584) 모두가 전사하자, 데루마사는 기후성을 포함한 미노국의 대부분을 물려받았다.

1590년 요시다성(아이치현)으로 거처를 옮긴 그는 1594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딸 도쿠히메(1565~1615)와 결혼했다. 1598년에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난 후, 데루마사의 충성심은 그의 장인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로 향했다. 1600년 이케다 데루마사와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오다 히데노부(1580~1605)가 거성으로 삼고 있던 기후성을 공동으로 공격했는데, 기후성을 불과 하루 만에 함락되었다.

전국 시대의 종언을 고한 세키가하라(기후현) 전투에서 데루마사는 자신이 속한 동군이 상대편인 서군의 모리 가문에게 평야에서 협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난구산 정상에서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공적으로 데루마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히메지성(효고현)을 이에야스로부터 하사받았다. 데루마사는 1613년에 세상을 떴지만, 말년에 매우 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졌던 그는 사이고쿠노 쇼군 즉, 서쪽의 쇼군이라는 칭호로 불렸다.